

## 소설 속의 캐릭터 ‘先生’ 언어의 자칭 표현과 대칭 표현의 번역양상\*

- 『坊っちゃん』 속의 ‘先生’의 언어 행위를 중심으로 -

양 정 순

### ◆ 국문초록

본고는 소설 『坊っちゃん』에서 구축된 캐릭터 ‘先生’의 대화문 속의 〈자칭 표현〉과 〈대칭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번역양상을 분석했다.

『坊っちゃん』에서 6명의 교사 캐릭터가 친소관계, 상하관계, 공적·사적관계, 캐릭터 언어로써 사용한 ‘おれ’ ‘ぼく’ ‘私’의 한국어 역을 보면, 캐릭터 언어로서의 특징보다 사회적 지위 및 상하관계에 따른 ‘나’ ‘저’의 어휘 선정이 있었다. 자칭 표현에 ‘家’가 결합된 표현에는 공동체의 인식이 있는 ‘우리’가 이용되었다. ‘自分’은 ‘저, 나, 우리, 자기’와 같이 재귀적 표현이 이용되는 등 한국어 역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小生’은 『坊っちゃん』의 1960년대의 번역 작품에서 ‘소생’이라는 번역 예가 있지만 그 이후 ‘나’ ‘저’가 이용되는 등, 시대에 따라 번역 어휘 선정의 차이가 보였다. 『坊っちゃん』에서 6명의 교사 캐릭터가 사용한 대칭 표현의 한국어 역은 다음과 같다. ‘あなた’는 ‘자네, 선생, 선생님, 과목명·직위명+선생님’과 같은 표현으로 번역되었다. 청자가 상위의 인물일 때는 ‘선생님, 과목명·직위명+선생님’과 같은 구체적인 지위 명칭의 사용 수가 많았고, 청자가 손아래의 인물일 때는 ‘자네’의 사용 수가 많았다. ‘君’는 ‘이봐, 이 사람아, 여보게, 자네, 선생, 선생님’과 같은 표현으로 번역되었고, 상대가 손아래의 인물일 때는 ‘자네’와 직업 명칭이 이용된 ‘선생님’의 번역 예가 많았다. 청자가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7091089)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0S1A 5B5A17091089)

손아래 인물과 손위의 인물일 때의 ‘貴様’는 상황과 장면에 따라 상대를 낮추는 ‘너, 네놈’의 어휘가 사용되었다. ‘이름(性)+君’은 ‘이름(性)+선생·선생님·씨’, ‘이름(性)+さん’은 ‘이름(性)+선생님’과 같이 직업 명칭이 이용되었다. ‘이름’은 ‘이름’으로 번역된 비율이 높았지만, 연령상 청자가 손위의 인물일 때는 ‘이름+할멈’, 손아래의 인물일 때는 ‘이름+짱·야’로도 번역된 예가 있었다. ‘諸君’은 ‘선생님’이라는 직업 명칭이 이용되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諸君’은 ‘여러분’으로 번역되는 화자의 직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보였다.

주제어 : 번역양상, 역할어, 자칭 표현, 대칭 표현, 교사의 언어 행위

## 1. 머리말

번역은 여러 가지 목적 아래에서 출발언어의 숙지한 이해를 통해 도착언어의 문화적 영향권 아래에서 형성된 의미체계로까지의 전환도 포함된다.<sup>1)</sup> 나카무라 모모코(中村桃子, 2013)<sup>2)</sup>는 도착언어의 의미체계로 전환될 때, 번역가의 난제 중의 언어 자원 중의 하나로서 인칭 표현을 지적했다. 자칭 표현의 ‘おれ’는 무모한 열혈남의 남성상을 나타내고 ‘ぼく’는 예의 바른 남성상을 나타낸다<sup>3)</sup>고 하는 바와 같이 인칭 표현은 캐릭터의 언어 행위는 일정의 아이덴티티 형성<sup>4)</sup>에 관여한다. 이 같은

1) 牧野成一(2018:3-4)은 출발언어가 일본어이고 도착언어가 영어일 때 표기상의 차이, 의성어·의태어의 차이 등을 제시했다.

2) 中村桃子(2013:69-80)는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재료로 간주되는 언어를 언어 자원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언어 자원에 대해 번역가를 대상으로 양케트 조사를 한 결과, 한국어는 남성어와 여성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어의 성차가 있는 인칭 표현과 문말 표현에 난점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3) 中村桃子(2007:65)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번역 작품에 등장한 예술리의 ‘僕’와 레트의 ‘おれ’를 통해 자칭 표현과 인물상을 분석했다. 金水敏(2014:64, 166-169)는 ‘おれ’의 경우 토착적·비지적(非知的), ‘僕’는 ‘おれ’와 대조적으로 지적·선진적인 캐릭터를 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했다.

4) 金水敏(2014: v-xii)는 ‘わしが知っておるんじゃ’ ‘わたくしが知っておりますわ’ ‘せっしやが存じております’ 등과 같이 일본어 문장에 나타난 인칭 표현과 문

캐릭터 언어는 일본 문화의 배경과 그 영향이 작용하여 형성되기 때문에 도착언어 문화권의 의미체계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번역가에 의해 재생산된 번역 표현은 도착언어의 문화권에 상응한 언어 자원이 이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재생산된 번역 작품을 일본어 학습자는 학습 교재<sup>5)</sup>로서도 이용하기도 하며, 캐릭터 언어와 그에 대한 번역양상은 언어문화 교수 학습의 교육 재료 활용을 위해 그 표현양상을 분석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현대와 같은 형태의 일본어가 구축되었다는<sup>6)</sup> 메이지기의 서생 언어<sup>7)</sup>를 기본으로 사용한 ‘先生’ 캐릭터의 언어 행위와 이 언어 행위가 도착언어의 문화 영향권 속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및 연구 방향

인칭 표현에 관한 연구는 상당수 이루어져 있지만,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남기심·고영근(1987)은 인칭 표현에 있어 자칭 표현은 ‘나(우리), 저(저희), 짐, 본인, 소생...’, 대칭 표현은 ‘너(너희), 자네, 당신, 닥, 노형, 어른, 귀형...’, 타칭 표현으로 ‘이·그·저+에, 사람, 분...’을 제시했다.<sup>8)</sup> 이필영(1987)은 현대 국어의 1인칭과 2인칭의 여러 표현 방법들을

---

말 표현을 보면 화자의 특징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 5) 高見澤孟(2004:48)은 실질 교재의 하나로써 제시했다.
- 6) 松村明(1977:168)은 도쿄어는 메이지 전기를 거쳐 메이지 후기에 확립되었고, 다이쇼기에 거의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 7) 金水敏(2003:112-113)는 메이지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 중의 하나로 ‘서생’이 있고, 이 서생이 쓰는 ‘서생 언어’는 일본의 지도자 언어의 모태라고 제시했다. 中村桃子(2007:148, 2013:118-120)는 메이지 시대에 국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표준어 성립에 남성성이 내포되었다고 지적했으며, ‘ぼく·きみ’와 같은 남성성이 있는 표현은 에도 말기에 의사나 무사 등 교양 있는 계층에 널리 사용되어 메이지 10년대에 서생 언어로 인지하게 되었다고 서술했다.

제시했다.<sup>9)</sup> 스즈키 다카오(鈴木孝夫, 1985)는 대우 표현에 따라 현대 일본어의 자칭사와 대칭사의 개념과 범주를 제시하고 영어와 비교 분석했다.<sup>10)</sup> 다쿠보 유키노리(田窪行則, 1997)는 일본어의 인칭 표현과 영어와 비교하면서 일본어의 고유명사·정기술의 자칭표현과 고유명사·정기술의 호칭 기능과 대칭사의 용법을 언급했다.<sup>11)</sup> 다케우치 나오야(竹内直也, 2003)는 인칭사의 시점에서 대칭대명사를 분석하고 그 속에서 나타난 특이성을 서술했다.<sup>12)</sup> 오타마키에(太田真希恵, 2009)는 스포츠 선수를 대상으로 자칭 표현이 ‘I’가 일본어 ‘ぼく’ ‘わたし’ ‘わたくし’ ‘おれ’로 번역될 때 나타난 선수의 캐릭터와 장면 특징에 따른 사례를 분석했다.<sup>13)</sup> 가나야 다케히로(金谷武洋, 2003)는 문 구조 내의 영어 ‘I’ VS 일본어의 자칭 표현과 영어 ‘You’ VS 일본어의 あなた·君와 같은 대칭 표현에 대해 ‘발상’의 차이를 다루었다.<sup>14)</sup> 中村桃子는 도

- 
- 8) 남기심·고영근(1987:75-83)은 한국어의 3인칭 또는 타칭 표현은 1·2인칭과는 달리 고유한 형태가 없고 지시관형사와 (의존)명사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9) 이필영(1987:209-229)은 1인칭·2인칭 표현의 결정되는 요인으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화자와 청자 각각의 연령, 성별 등을 제시했다.
- 10) 鈴木孝夫(1985:17-59)는 자칭사로서 ‘わたし・わたくし・僕…’, 대칭사로서 ‘君・お前・あなた・貴様…’와 같은 인칭 대명사, 친족 명칭, 지위 명칭을 제시했다.
- 11) 田窪行則(1997:13-44)는 일본어의 인칭 표현에는 영어권의 인칭 대명사와 같은 인칭을 전종하는 품사는 없지만,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 청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친족명칭을 나타내는 어휘,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어휘, 계층을 나타내는 어휘, 호칭 등을 제시했다.
- 12) 竹内直也(2003:1-12)는 현대 일본어의 대칭대명사는 고정화·특정화 할 수 없고, 1:1 회화에서 상대를 향해 발언하는 대치성이 다른 인칭대명사에 비해 강하고, 지시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서술했다.
- 13) 太田真希恵(2009:56-73)는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와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의 인터뷰에서 사용된 자칭 표현이 일본어로 번역될 때 우사인 볼트의 ‘I’는 강하고 남성다운 히어로 인물상을 나타내는 표현인 ‘おれ’로, 이상을 좇고 현명한 인물상을 나타내는 표현인 ‘僕’로 번역했으며, 우사인 볼트의 ‘I’를 ‘私’로 번역된 경우는 1인실의 호텔에서 침착한 분위기의 장면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14) 金谷武宏(2003:11-51)는 영어와 일본어의 인칭 표현에 대해 대조 분석했다. 일본어는 대인관계에 따라 다양한 표현으로 제시되지만, 영어는 ‘I’와 ‘you’로 수렴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착언어가 일본어일 때의 인칭 표현의 번역양상을 분석했는데, ‘I’가 ‘おれ’ ‘僕’ ‘私’로 발화할 때 나타난 인물의 특징을 분석했다.<sup>15)</sup> 구로사키 사토코(黒崎佐仁子, 2010)는 자칭 표현에 나타난 지역적 특성을 다루었고,<sup>16)</sup> 슈쿠리 유키코(宿利由希子, 2012)는 남성 캐릭터를 ‘신입 사원 계 · 체육회 계 · 호스트 계 · 도련님 계 · 게이 계’로 나누고 이 캐릭터와 남성 자칭사의 매칭을 조사 분석했다.<sup>17)</sup> 정혜선(2001)은 인칭사를 인칭대명사, 고유명사, 호칭 등을 포함하여 자칭사, 대칭사, 타칭사로 나누고 단수형 인칭사 · 복수형을 나누어 한일 양국 언어를 대조 분석했다.<sup>18)</sup> 오수현(2010)은 한일 양 언어의 인칭 대명사를 상하관계, 성차에 초점을 두어 그 차이를 분석했다.<sup>19)</sup>

이처럼 인칭 표현에 관한 연구는 일정의 스테레오타입이 일본의 언어문화에 반영된 언어표현의 연구, 대조 연구, 비등가 관계에서의 번역 표현, 문화 차이에 따른 어휘장의 번역연구 등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본고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소설 속에서 인물의 정체성이 구축된 특정 직업군의 남성어를 다루고자 한다. 그 가운데 현대 일본 언어문화 형성과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이 있는 ‘先生’ 캐릭터의 언어 행위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언어 행위가 한국어 역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15) 中村桃子(2013:59-73)는 ‘I’가 ‘僕’와 ‘おれ’로 번역될 때의 등장인물의 인물상에 대해 분석하면서, 일본어 자칭 표현과 아이덴티티를 논했다.

16) 黒崎佐仁子(2010:1-14)는 자칭사의 쓰임에 대해 東京 · 大阪의 방언성과 관련지어 논하고 그 출현 시기에 대해 분석했다.

17) 宿利由希子(2012:85-96)는 남성 자칭사 ‘わたし · ぼく · おれ · 自分’을 대상으로 캐릭터의 직업과 연관시켜 조사한 결과, ‘僕’ ‘わたし’의 발화자는 예의 바르고 품위 있는 캐릭터로 인식하고 おれの 발화자는 겸손하지 못할 것 같은 캐릭터로 인식한다고 서술했다.

18) 鄭惠先(2001:33-45)은 일본어는 한국어에 비해 인칭사의 생략이 많고, 일본어의 ‘自分’과 한국어의 ‘자기’의 사용 범주의 차이를 지적했다.

19) 吳秀賢(2010:103-111)은 자칭의 경우, 일본어는 남녀 차가 보였고 화자와 청자와의 상하관계는 보이지 않았지만, 한국어는 남녀 차가 보이지 않고, 화자와 청자와의 상하관계는 보였다고 서술했다. 대칭의 경우, 일본어는 남녀 차가 보였지만 한국어는 보이지 않았고, 한일 양 언어 모두 상하관계에 따른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손아래의 인물이 손위의 인물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서술했다.

제시되었는지 분석한다. 분석작품으로는 메이지기의 작품 가운데, 한국에서도 다수의 번역 작품이 있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坊っちゃん』으로 한다. ‘先生’ 캐릭터의 대상은 인물의 정체성이 구축된<sup>20)</sup> ‘坊っちゃん’ ‘堀田(山嵐)’ ‘教頭(赤シャツ)’ ‘吉川(野だいこ)’ ‘古賀(うらなり)’ ‘校長’으로 하고, 연구 어휘는 6명의 ‘先生’의 대화문 속의 <자칭 표현> <대칭 표현>을 중심으로 ‘인칭대명사(人称代名詞)’ ‘친족명칭(親族名稱)’ ‘지위명칭(地位名稱)’ ‘직업명칭(職業名稱)’, 이름(性·名) 등을 다룬다.

### Ⅲ. 자칭 표현의 번역양상

대화 중에 화자가 자기 자신을 지시하거나 자기 자신을 언급하기 위해 이용된 표현에는 ‘おれ, 僕, 私, 自分, 吾輩, 吾々, わし…’ 등이 제시 되는데 『坊っちゃん』에서 등장한 ‘先生’ 캐릭터의 자칭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화자가 ‘坊っちゃん’일 때의 번역양상

작중에서 의협심 넘치는 인물로 서술된 ‘坊っちゃん’이 화자일 때의 자칭 표현과 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

20) 中村桃子(2007:25-28)는 언어 자원으로써 말과 아이덴티티의 관계를 본질주의와 구축주의라는 2가지 관점을 다루었다.

〈표 1〉 '坊っちゃん'의 자칭 표현

칭자	표현	번역양상
山嵐	おれ(19)	■(3) ∅(23) 나(154) 저(24) 우리(5)
	僕(3)	■(1) ∅(13) 나(16) 저(2) 우리(1)
	僕等(1)	우리(8) 우리들(3)
赤シャツ	おれ(1)	나(11)
	僕(6)	■(4) ∅(8) 나(17) 저(33) 우리(4)
野だいこ	おれ(3)	나(33)
校長	私(8)	∅(2) 나(28) 저(58)
学生	おれ(6)	∅(1) 나(65)
清	おれ(1)	나(11)
萩野	おれ(4)	∅(4) 나(35) 저(5)
	僕(4)	■(5) ∅(5) 나(18) 저(12) 우리(2) 지(2)
いか銀	おれ(1)	나(11)
芸者	おれ(1)	나(11)
教師等	私(2)	∅(1) 나(4) 저(17)

■: 번역 없음 ∅: 인칭 표현 생략<sup>21)</sup>

- (1) 「なんでバツタなんか、おれの床の中へ入れた」坊っちゃん→学生<sup>22)</sup>  
“뭇 땀에 메뚜기를 내 잠자리에 넣었나?” [문]
- (2) 「本当の本当のって僕あ、嫁が貰いたくって仕方がないんだ」坊っちゃん→萩野  
“정말이고말고요. 나도 장가가고 싶어서 죽겠어요.”[현]
- (3) 「私は徹頭徹尾反対です……」坊っちゃん→教師たち  
「나는 철두철미 반대합니다……」[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坊っちゃん'의 자칭 표현을 보면, 칭자가 손아래의 인물 또는 상대와 친숙할 때나 싸울 때는 'おれ', 칭자가 손위의 인물일 때는 '僕', 칭자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장인 '教長'이거

21) ■은 출발언어에는 있지만, 도착언어로 번역되지 않은 문장이고, ∅은 번역 문장은 있지만, 인칭 표현이 생략된 문장으로 <표 1> - <표 12>까지 적용한다.

22) 일본어 예문 뒤에 표기된 인물은 '화자 → 칭자'를 나타내고, 한국어 번역 문장 뒤의 출판사명은 [문]과 같이 첫 글자로 제시하고, 이하 모든 예문에 적용한다.

나 공적 상황에서는 ‘私’가 사용되었다. 청자와의 인물 설정에 따른 번역양상을 보면, ‘山嵐’에게 사용한 ‘おれ・僕’는 ‘나> 저> 우리’ 순으로 나타났고, 싸울 때 교감 선생님인 ‘赤シャツ’에게 사용한 ‘おれ’는 ‘나’, ‘僕’는 ‘저> 나’ 순으로 나타났고, 비호감 교사인 ‘吉川’와 하숙집 주인 ‘いか銀’에게 사용한 ‘おれ’는 ‘나’로 번역했다. 교장에게 사용한 ‘私’는 ‘저> 나’, 공적 상황에서 사용한 ‘私’ 또한 ‘저> 나’ 순으로 나타났다. 청자가 학생, 게이샤, 하녀 ‘清’일 때 사용한 ‘おれ’는 ‘나’로 번역되었고, 하숙집 노인의 ‘おれ’는 ‘나> 저’, ‘僕’는 ‘나> 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おれ・僕’의 번역 어휘는 캐릭터 특징을 나타내는 표현보다 연령, 사회적 거리, 상하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보였다.

## 2. 화자가 ‘山嵐’인 경우

작중에 완고한 성격의 인물로 서술된 ‘山嵐(堀田)’가 화자일 때의 자칭 표현과 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2〉 ‘山嵐’의 자칭 표현

청자	표현	번역양상
坊っちゃん	おれ(6)	∅(4) 나(62)
	僕(10)	■(2) ∅(4) 자기(1) 나(102) 우리(1)
	僕等(1)	우리(7) 우리들(4)
	自分(5)	∅(1) 나(43) 자기(7) 자신(1) 자네(2) 본인(1)
	自分共(1)	우리(6) 우리들(5)
赤シャツ	おれ(1)	나(11)
野だいこ	おれ(1)	나(11)
芸妓	おれ(1)	■(3) ∅(1) 나(7)
教師等	私(3)	나(7) 저(26)
	吾輩(1)	나(2) 저(4) 우리(4) 우리들(1)
	吾々(1)	교사(1) 우리(6) 우리들(4)

- (4) 「おれが不埒か、君が大人しくないんだか、どっちかだろう」  
山嵐→坊っちゃん  
“내가 잘못했거나 자네가 짐झ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 [향]
- (5) 誰がなるものか、自分が免職になるなら、赤シャツもいっしょに  
免職させてやる 山嵐→坊っちゃん  
“누가 그만뒤? 내가 좃겨나면 빨간 셔츠도 무사하지는 못할걸?” [가]
- (6) 吾輩は大いに古賀君のためにこの転任を祝するのである。  
山嵐→教師等  
우리는 고가 선생을 위해 이 전근을 축하해야 합니다. [책]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山嵐’의 자칭 표현으로 ‘僕’ ‘おれ’ ‘自分’ ‘僕等’ ‘自分共’가 사용되었는데, 청자가 손아래의 인물, 친한 인물, 싸움의 상대일 때는 ‘おれ’, 공적 상황에서는 ‘私’ ‘吾々’ ‘吾輩’가 사용되었다. 청자가 ‘坊っちゃん’일 때 사용한 ‘おれ’ ‘僕’에 대한 번역을 보면 ‘나> 저’ 순으로 나타났고, 체육계 캐릭터에게서 보인다는 ‘自分’<sup>23)</sup>은 번역오류를 빼고는 ‘나’ 또는 재귀적 용법의 ‘자기’로 번역되기도 했다. 싸움의 장면에서 청자가 교감 선생님인 ‘赤シャツ’와 미술 교사인 ‘野だいこ’일 때 사용한 ‘おれ’는 ‘나’로 일관되게 번역되었다. 공적 상황에서 사용된 ‘私’는 ‘저> 나’ 순으로 나타났고, ‘吾々’ ‘吾輩’는 ‘나’ ‘저’와 같은 단수 표현 외에도 ‘우리’ ‘우리들’로 번역되기도 했다.

### 3. 화자가 ‘赤シャツ’인 경우

坊っちゃん이 다소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인물로 인식한 ‘赤シャツ(教頭)’가 화자일 때의 자칭 표현과 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

23) ‘自分’에 대해 金水敏(2014:64)는 캐릭터 언어로서 무사 언어 중의 하나로 제시했고, 宿利由希子(2012:85-96)는 체육계 활동을 하는 인물의 언어로 제시했다.

〈표 3〉 ‘赤シャツ’의 자칭 표현

칭자	표현	번역양상
坊っちゃん	僕(13)	■(9) ∅(26) 우리(4) 나(86) 저(9) 저(3) 자기(5) 자기네(1)
	僕等(1)	우리(8) 우리들(3)
	教頭(1)	교감(4) 교감인 나(6) 교감 선생인 나(1)
山嵐	僕(6)	■(5) ∅(16) 나(37) 저(7) 우리(1)
野だいこ	吾々(1)	■(3) 우리(6) 우리들(2)
教師等	私(2)	■(1) ∅(1) 나(2) 저(18)
	自分(1)	∅(1) 저(5) 자기(2) 자신(3)

- (7) ちょっと君に話があるから、僕のうちまで来てくれ 赤シャツ→  
坊っちゃん  
“선생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집에 좀 올래요?” [책]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赤シャツ’는 ‘僕’의 사용률이 높았으며 그 밖에 자신의 직위를 언급한 ‘教頭’, 같은 구성원임을 보이는 ‘吾々’, 공적인 상황에서는 ‘私’ ‘自分’이 사용되었다. 칭자가 ‘坊っちゃん’ ‘山嵐’일 때의 ‘僕’는 ‘나> 저’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7)처럼 자칭 표현 뒤에 ‘家(집)’가 접속될 때는 공동체 의식이 반영된 ‘우리’<sup>24)</sup> 또는 재귀적 표현 ‘자기’가 이용되었다. 교사들 간의 공적 상황에서 사용한 ‘私’는 ‘저> 나’의 사용 수가 보였고, ‘自分’은 ‘저, 자신, 자기’의 번역 예가 보였으며, ‘자신, 자기’는 간접문으로 바뀌 번역될 때 나타났다.

#### 4. 화자가 ‘野だいこ’인 경우

‘坊っちゃん’과 같은 ‘江戸っ子’인 ‘野だいこ(吉川)’가 화자일 때의 자칭 표현과 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24) 남기심·고영근(1987:)은 단수적 용법의 ‘우리’에 대해 가족이나 구성원들의 공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 4〉 '野だいこ'의 자칭 표현

칭자	표현	번역양상
坊っちゃん	僕(2)	■(1) 나(17) 저(4)
	私(1)	나(6) 저(5)
	吉川(1)	■(1) 吉川(8) 吉川님(2)
赤シャツ	私(1)	■(2) 나(2) 저(7)
鈴	僕(1)	■(4) 나(7)
教師等	私(1)	저(11)
	吾々(2)	∅(2) 우리(16) 우리들(2) 저희(1) 저희들(1)

- (8) 私もこれで江戸っ子です 野だいこ一坊っちゃん  
 나도 이래봐도 도쿄 토박이입니다요. [향]
- (9) この吉川をご打擲とは恐れ入った。野だいこ一坊っちゃん  
 이 요시카와를 때리시다니 죄송한데 [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칭자가 동료 교사이거나 손아래의 인물 일 때는 ‘僕’ ‘이름(性)’, 손위의 인물일 때나 격식 있는 장소에서는 ‘私’ ‘吾々’가 사용되었다. 칭자가 게이샤 ‘鈴’일 때 사용한 ‘僕’는 ‘나’로 번역되었지만, 교사인 ‘坊っちゃん’일 때 사용한 ‘僕’는 ‘저’로도 번역된 것처럼, 상대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이가 보였다. 자칭 표현으로 자신의 ‘이름(性)’으로 제시한 경우, 번역 예는 ‘이름(性)> 이름(性)+님’ 순으로 나타났다. 칭자가 교감 선생님일 때 사용한 ‘私’는 ‘저> 나’의 순으로 번역되었다. 공적 상황에서의 나는 ‘저’로 번역된 사례가 많았고, ‘吾々’는 ‘우리(들), 저희’와 같은 복수형이 이용되어 번역되었다.

### 5. 화자가 ‘うらなり’인 경우

군자 같고 점잖은 캐릭터인 ‘うらなり(古賀)’가 화자일 때의 자칭 표현과 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5〉 ‘うらなり’의 자칭 표현

칭자	표현	번역양상
坊っちゃん	私(2)	∅(1) 나(8) 저(13)
教師等	私(1)	저(11)
	小生(1)	∅(2) 소생(2) 저(7)

- (10) 諸先生方が小生のためにこの盛大なる送別会をお開き下さったのは、うらなり君→教師等  
여러 선생께서 소생을 위하여 이 성대한 송별연을 베풀어주시는 것은 [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うらなり’의 자칭 표현을 보면 ‘私’가 주로 사용되었고, 그 외 공식 상황에서 ‘小生’가 사용되기도 했다. 칭자가 ‘坊っちゃん’일 때 사용한 ‘私’는 ‘저, 나’의 번역 예가 보였고, 교사간의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私’는 ‘저’의 번역률이 높았다.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된 ‘小生’은 1960년대의 번역 작품에서는 ‘소생’<sup>25)</sup>이 이용되었지만, 그 외의 작품에서는 ‘저’가 이용되었다.

## 6. 화자가 ‘校長’인 경우

화자가 ‘校長’일 때의 자칭 표현과 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6〉 ‘校長’의 자칭 표현

칭자	표현	번역양상
坊っちゃん	わたし(1)	나(11)
教師等	自分(2)	나(10) 저(12)

25) 남기심·고영근(1987:75-83)은 한자어 계통의 자신을 낮추는 소생은 많이 쇠퇴해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1960년대 번역 작품에서 ‘소생’의 표현이 이용되는 번역양상이 보였다.

- (11) 自分はよくこれで校長が勤まるとひそかに慚愧の念に堪えんが、  
校長→教師等  
이런 내가 계속 교장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지 부끄러워집니다. [책]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校長'은 청자가 손아래 인물일 때는 'わたし', 공식적인 자리에서 '自分'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번역으로 청자가 '坊っちゃん'인 경우에 'わたし'는 '나'의 사용률이 높았지만, 연설 때 사용한 '自分'은 '저, 나'의 번역 예가 보였다.

『坊っちゃん』에 등장한 6명의 '先生' 캐릭터가 사용한 자칭 표현의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대화의 장면에서 화자의 캐릭터 특징을 드러낸 'おれ' '僕' '私'의 한국어 역은 연령, 사회적 지위, 상하관계에 따른 '나' '저'의 어휘 선정이 보였고, 보편적으로 'おれ'는 '나', '僕'는 '나, 저', '私'는 '저'의 번역 예가 보였다. 체육계 캐릭터 표현인 '自分'은 '나' '자기'로 번역되었고, 같은 조직의 구성원 사이에 이용된 '吾々' '吾輩'는 '우리, 우리들, 저희, 저희들'과 같이 상하관계에 따라 번역 어휘가 선정되었다.

#### IV. 대칭 표현의 번역양상

화자가 발화 상대를 지시하거나 언급하는 표현에는 'あなた, 君, 貴様, お前, 諸君, 이름...' 등이 제시되는데, 『坊っちゃん』에 등장한 '先生' 캐릭터의 대칭 표현은 다음과 같다.

##### 1. 화자가 '坊っちゃん'인 경우

화자가 '坊っちゃん'일 때 대칭 표현과 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7〉 ‘坊っちゃん’의 대칭 표현

칭자	표현	번역양상
山嵐	君(16)	■(4) ∅(44) 자네(74) 여보게(1) 이봐(5) 이 사람 아(1) 당신(2) 우리(1) 사람(1) 선생(4) 선생님(37)
赤シャツ	あなた(4)	■(3) ∅(1) 당신(6) 당신들(1) 선생님(14) 선생님 들(1) 교감 선생님(18)
野だいこ	貴様(4)	■(1) 너(14) 네놈(10) 네놈들(2) 그대(1) 너이(1) 너희(2) 너희들(1) 이 자식+너(1) 당신(5) 네 녀석(2) 네 녀석들(2) 선생님(1) 맥(1)
うらなり	あなた(1)	∅(2) 당신(2) 선생님(6) 古賀선생님(1)
	君(1)	■(2) ∅(8) 당신(1)
	古賀さん(1)	古賀씨(2) 古賀선생(2) 古賀선생님(7)
校長	あなた(1)	선생님(1) 교장 선생님(10)
教師	貴様達(1)	네놈들(5) 너이 놈들(1) 너희들(2) 너희(1) 지들(1) 너네들(1)
学生	君等(2)	너희(5) 너희들(16) 자네들(1)
清	清(2)	■(1) 清(17) 清할멈(2) 할멈(2)
萩野	お婆さん(4)	∅(3) 할머니(41)
芸者	貴様(1)	■(3) 너(6) 그쪽(1) 당신(1)

- (12) あなたはどっか悪いんじゃないありませんか。坊っちゃん→うらなり君  
교가 선생님, 어디 아프신 데라도 있는 게 아닙니까? [신]
- (13) 到底あなたのおっしゃる通りにゃ、出来ません、坊っちゃん→校長  
나는 도저히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
- (14) おれは江戸っ子だから君等の言葉は使えない 坊っちゃん→学生  
나는 에돗포니까 너희들 말은 쓸 수 없다. [을]
- (15) おれは唄わない、貴様唄ってみろ 坊っちゃん→芸者  
나는 노래 같은 건 안 부르니까 너나 불러봐라 [향]
- (16) 貴様の世話になるもんか 坊っちゃん→野だいこ  
네놈이 걱정할 바 아니라고. [인]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坊っちゃん’은 청자가 손아래의 인물이거나 시비의 대상일 때는 ‘貴様’, 손아래 인물과 친한 상대에게는 ‘君’ ‘이름’, 손위의 인물일 때는 ‘あなた’가 사용되었다. ‘山嵐’에게 사용한 ‘君’은 ‘자네<sup>26)</sup>, 선생님’ 외에 ‘이봐, 여보게’와 같은 감탄사가 이용되었다. 교감인 ‘赤シャツ’와 교장에게 사용한 ‘あなた’는 ‘선생님, 직위+선생님’의 번역 예가 많았고, ‘うらなり’에게 사용한 ‘あなた’는 ‘당신, 선생님, 이름+선생님’<sup>27)</sup>의 번역 예가 보인 것처럼 직위 및 상하관계에 따라 다른 번역 어휘가 선정되었다. 싸움 장면에서 사용한 ‘貴様’는 지시사 ‘이’에 경멸하는 내용의 ‘자식’이 더해진 표현<sup>28)</sup>, ‘네놈’과 같이 비속어가 사용되었고, 게이샤에게 사용한 ‘貴様’는 생략시키거나 ‘너’ ‘당신’과 일반적인 표현으로 번역된 것처럼, 상대와 상황에 따라 번역 어휘의 차이가 보였다. 청자가 친밀한 사이인 하녀 ‘清’일 때 대칭으로 ‘清’라고 ‘이름’을 사용한 표현에 ‘이름’ 외에도 ‘할멈’으로 번역되는 등 대인관계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이용되었다.

## 2. 화자가 ‘山嵐’인 경우

화자가 ‘山嵐’일 때 대칭 표현과 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26) 남기심·고영근(1987:75-83)은 ‘자네’는 ‘하계’로 대우해야 할 사이에 쓰이는데 상대방이 장성한 연하이거나 장성한 친구일 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27) 1960년대 번역 작품에서 ‘당신, 자네’의 번역 예가 보였다.

28) 이필영(1987:226-228)은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으며, 청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상대방의 행위나 성품을 경멸할 때는 지시사 ‘이’+‘놈, 자식, 녀석, 원수, 나쁜 놈……’과 같은 표현이 나타난다고 제시했다.

〈표 8〉 ‘山嵐’의 대칭 표현

칭자	표현	번역양상
坊っちゃん	君(44)	■(7) ∅(56) 너(1) 자네(413) 선생(1) 여보게(1) 이 봐(2) 이보게(1) 우리(2)
赤シャツ	教頭(2)	교감(10) 교감 선생(2) 교감 선생님(10)
	貴様(1)	■(3) 너(5) 네놈들(1) 당신(1) 교감(1)
芸者	貴様等(1)	너희(3) 너희들(3) 네놈들(3) 너이들(1) 네녀석들(1)
野だいこ	芸者(2)	■(6) 기생(8) 이봐(3) 거기(1) 게이샤(2) 이보게(2)
うらなり	貴様等(1)	너희(3) 너희들(3) 너이들(1) 네놈들(3) 네녀석들(1)
	君(2)	∅(2) 군(4) 古賀씨(1) 古賀선생(9) 선생(1) 선생님 (3) 古賀선생님(2)
校長	古賀君(2)	古賀군(4) 古賀씨(2) 古賀선생(10) 古賀선생님(6)
教師等	校長(1)	교장 선생님(11)
	諸君(1)	∅(1) 제군(1) 여러분(1) 다른 분들(1) 선생님(2) 선생님들(5)

- (17) 今日は君のお蔭で遅刻したんだ。山嵐→坊っちゃん  
오늘은 선생님 때문에 지각했으니 [향]
- (18) 「おい君どこに宿ってるか、山城屋か、うん、今に行って相談する」  
山嵐→坊っちゃん  
“이봐 자네 어디에 묵고 있나? 야마시료야? 알았네. 곧 갈 테니  
상의를 하세.” [현]
- (19) 私は教頭及びその他諸君のお説には全然不同意であります。  
山嵐→教師等  
저는 교감 선생님 및 여러 선생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  
니다. [책]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山嵐’의 대칭 표현에는 ‘君’ ‘이름(性)+君’ ‘貴様’ ‘諸君’ ‘직위’ 등이 보였다. 칭자가 ‘坊っちゃん’일 때 사용된 ‘君’는 장면 및 상황에 따라 ‘이봐, 이보게, 우리’와 같이 감탄사 및 자칭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했지만, 대체로 ‘자네’로 번역된 예가 상당수 차지했다. 동료 교사인 ‘うらなり’일 때 사용된 ‘君’는 ‘군<sup>29)</sup>, 이름(性)+선생(님), 선생(님)’의 번역 예가 보인 것처럼, 발화 장소, 상대와의 거리감에 따라 어

휘 선정을 달리했다. 공적 자리에서 언급된 ‘教頭’ ‘校長’은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과 같이 ‘선생님’과 같은 직업 명칭을 더해 번역되었다. 싸움 장면에서 ‘赤シャツ’와 ‘野だいこ’에게 사용한 ‘貴様’ ‘貴様等’의 한국어 역은 ‘놈, 녀석, 자식’과 같이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으로 번역했다. 공적 장면에서 사용된 ‘諸君’은 1960년대의 작품에서는 문어적 표현의 ‘제군’이 사용되었고, 그 이후의 작품에서는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 직업 명칭이 더해진 ‘선생님, 여러 선생님’ 등의 어휘가 선정되었다.

### 3. 화자가 ‘赤シャツ’인 경우

화자가 ‘赤シャツ’일 때 대칭 표현과 이에 대한 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9〉 ‘赤シャツ’의 대칭 표현

청자	표현	번역양상
坊っちゃん	あなた(2)	자네(19) 당신(1) 선생(2)
	君(39)	■(14) ∅(74) 당신(5) 자네(163) 선생(93) 선생님(74) 여보게(4) 이보게(2)
	君等(1)	자네들(1) 당신들(1) 선생(1) 두 선생(2) 두 분(1) 두 분 선생님(2) 선생님들(3)
山嵐	君等(1)	자네들(1) 당신들(1) 선생(1) 두 선생(2) 두 분(1) 두 분 선생님(2) 선생님들(3)
	堀田君(1)	∅(1)堀田君(2)堀田先生(5)堀田 선생님(3)
野だいこ	吉川君(3)	■(3)吉川(10)吉川君(7)吉川先生(13)

- (20) *あなたのおっしゃる通りだと、下宿屋の婆さんの云う事は信ずるが、赤シャツ→坊っちゃん*  
자네 말대로라면 하숙집 할머니의 말은 믿지만, [가]

29) 1960년대 번역 작품에서 청자가 동료 또는 손아래 남자일 때 높여 부른다는 ‘군’의 번역 예가 보였다.

- (21) おい、吉川君どうだい、あの浜の景色は…… 赤シャツ→野だいこ  
이박, 요시키와. 저 해변 풍경은 어떤가? [현]
- (22) 僕の弟が堀田君を誘いに行ったから、こんな事が起ったので、  
赤シャツ→山嵐  
제 동생이 훗타 선생님께 구경가자고 하는 바람에 이런 사고가  
생겨, [향]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감인 ‘赤シャツ’의 대칭 표현에는 ‘あなた’ ‘君’ ‘이름(性)+君’이 보였다. 청자가 신입교사인 ‘坊っちゃん’에게 사용한 ‘あなた’와 ‘君’는 ‘자네’로 번역된 예가 많았지만 ‘선생, 선생님’의 번역 예도 상당수 보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위가 반영된 번역 표현이 나타났다. 청자가 ‘山嵐’일 때 사용된 ‘이름(性)+君’은 사회적 지위가 반영된 ‘이름(性)+선생, 이름(性)+선생님’의 번역양상이 보였지만, 청자가 친한 관계에 있는 교사 ‘野だいこ’일 때 사용한 ‘이름(性)+君’은 ‘이름(性)+선생’ 외에도 ‘이름(性)’으로만 번역된 것처럼, 화자와 청자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어휘 선정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 4. 화자가 ‘野だいこ’인 경우

화자가 ‘野だいこ’일 때 대칭 표현과 이에 대한 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0> ‘野だいこ’의 대칭 표현

청자	표현	번역양상
坊っちゃん	君(2)	당신(5) 자네(1) 선생(9) 선생님(6) 수학 선생(1)
赤シャツ	あなた(1)	■(2) 당신(1) 선생님(2) 교감 선생님(6)
	教頭(4)	∅(1) 교감(1) 교감님(1) 교감 선생(2) 선생님(1) 교감 선생님(38)
校長	校長(1)	교장 선생(1) 교장 선생님(10)
鈴	鈴ちゃん(2)	■(6)鈴(6)鈴짱(8)鈴야(2)

- (23) 教頭は全く君に好意を持ってるんですよ。野だいこー坊っちゃん  
교감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으신 거라우. [향]
- (24) あなたの手腕でゴルキなんですから、野だいこー赤シャツ  
교감 선생님 숨씨로도 고르키밖에 안 걸리는 날이니 [문]
- (25) 鈴ちゃん僕が紀伊の国を踰るから、一つ弾いて頂戴 野だいこー鈴  
스즈짱 내가 기노꾸니를 춤출께, 사미생 좀 타줘 [을]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野だいこ’는 상대가 신입교사일 때는 ‘君’, 손위의 인물일 때는 ‘あなた’ ‘직위명’, 친한 게이샤에는 ‘~ちゃん’을 사용했다. 청자가 ‘坊っちゃん’일 때 사용된 ‘君’는 ‘선생, 선생님’ 등과 같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번역 예가 많았다. ‘教頭’ ‘校長’의 한국어 역은 ‘직위+선생님’과 같이 번역하고, 교감인 ‘赤シャツ’에게 사용한 ‘あなた’는 ‘교감 선생님’과 같은 직위 표현으로 번역한 것처럼 구체적인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양상을 보였다. 게이샤인 ‘鈴’에게 ‘~ちゃん’을 접속해 사용한 표현은 ‘이름, 이름+짱, 이름+야’ 등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용되어 번역되었다.

### 5. 화자가 ‘うらなり’인 경우

화자가 ‘うらなり’일 때 대칭 표현과 이에 대한 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1> ‘うらなり’의 대칭 표현

청자	표현	번역양상
坊っちゃん	あなた(1)	당신(2) 선생님(9)
赤シャツ	教頭(1)	■(2) 교감 선생(3) 교감 선생님(6)
校長	校長(1)	교장 선생(11)
教師等	諸君(1)	여러분(3) 여러 선생님(3) 여러 선생님들(5)
	諸先生方(1)	∅(1) 선생님들(1) 여러 선생(1) 여러 선생님(3) 여러 선생님들(2) 모든 선생님(1) 모든 선생님들(2)

- (26) あなたは大分ご丈夫のようすな うらなり→坊っちゃん  
당신은 꽤 건강하신 것 같군요. [을]
- (27) ことにただ今は校長、教頭その他諸君の送別の辞を頂戴して、  
大いに難有く服膺する訳であります。うらなり→教師等  
특히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은 일평생 가슴에 새겨두고 살겠습니다. [생]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라나리’의 대칭 표현에는 ‘あなた’, ‘직위명’, ‘諸君’이 보였다. 청자가 ‘坊っちゃん’일 때 사용한 ‘あなた’는 1960년대의 번역 작품에서 ‘당신’으로 번역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선생님’으로 번역되었다. ‘教頭’ ‘校長’과 같은 직위 표현은 직함에 남을 높여 이르는 말인 ‘선생(님)’이 더해 번역되었다. 선생님들 앞에서 사용한 ‘諸君’은 여러 사람을 높이는 표현인 ‘여러분’과 사회적 지위가 반영된 ‘여러 선생님(들)’으로 번역되었다. ‘諸先生方’은 ‘여러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과 ‘先生’와 대응시켜 번역되었다.

## 6. 화자가 ‘校長’인 경우

화자가 ‘校長’일 때 대칭 표현과 이에 대한 청자에 따른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2> ‘校長’의 대칭 표현

청자	표현	번역양상
坊っちゃん	あなた(5)	∅(6) 당신(10) 선생(17) 자네(14) 선생님(8)
	君(5)	∅(9) 군(4) 자네(15) 선생(18) 선생님(9)
教師等	諸君(2)	∅(4) 제군(3) 모두들(1) 여러분(14)

- (28) そりゃごもっとも——君の云うところは一々ごもっともだが、校長→  
坊っちゃん  
당연하지. 선생이 하는 말은 모두 옳은 말이야. [신]

- (29) 不幸にして今回もまたかかる騒動を引き起したのは、深く諸君  
 に向って謝罪しなければならん。校長→教師等  
 불행하게도 이번에도 역시 이런 소동을 일으킨 것은, 제군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을]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장의 대칭 표현에는 ‘あなた’ ‘君’ ‘諸君’이 보였다. 청자가 ‘坊っちゃん’일 때 ‘あなた’ ‘君’에 대한 번역 예를 보면 ‘자네, 선생, 선생님’과 같이 장성한 성인을 대우하는 ‘자네’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선생, 선생님’의 사용 수가 많았으며, ‘君’는 ‘군’, ‘あなた’는 ‘당신’으로 번역한 차이가 보였다. ‘諸君’은 ‘제군, 여러분’이 이용되었는데, ‘山嵐’ ‘うらなり’의 번역양상 <표 8> <표 11>에서 보였던 ‘선생님’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표현은 없었다.

『坊っちゃん』에서 6명의 캐릭터가 사용한 대칭 표현의 번역양상은 다음과 같다. 화자와 청자 사이에 형성된 ‘あなた’<sup>30)</sup> ‘君’ ‘貴様’<sup>31)</sup> ‘諸君’<sup>32)</sup> ‘이름(性)+君’ ‘이름(性)+さん’ 등의 대칭 표현은 연령, 사회적 지위, 친소관계, 상하관계에 따라 ‘자네, 선생, 선생님, 과목명·직위명+선생님’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다양한 어휘가 선정되었다. ‘이름’은 ‘이름’으로 번역된 비율이 높았지만, 연령상 청자가 손위의 인물일 때는 ‘이름+할멈’, 손아래의 인물일 때는 ‘이름+짱·야’와 같이 연령상의 상하관계에 따라 어휘가 선정되었다.

30) 大杉文彦(1889)는 근대 일본어의 대칭 표현으로 전반적으로 이용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31) 金水敏(2014:72-74)는 경의가 낮아짐에 따라 사용자도 남성으로 치우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32) 金水敏(2014:107)는 지위나 지식이 있는 캐릭터를 표상하며, 메이지 시대의 서생 언어를 기원으로 하고 연설 언어로도 이용되었다고 설명했다.

## V. 마무리

본고는 『坊っちゃん』을 대상으로 교사의 언어 행위 <자칭 표현> <대칭 표현>과 그 번역양상을 분석했다.

『坊っちゃん』에서 6명의 교사 캐릭터가 친소관계, 상하관계, 공적·사적관계, 캐릭터 언어로써 사용한 ‘おれ’ ‘ぼく’ ‘私’의 한국어 역을 보면, 캐릭터 언어로서의 특징보다 사회적 지위 및 상하관계에 따른 ‘나’ ‘저’의 어휘 선정이 있었다. 자칭 표현에 ‘家’가 결합된 표현에는 공동체의 인식이 있는 ‘우리’가 이용되었다. ‘自分’은 ‘저, 나, 우리, 자기’와 같이 재귀적 표현이 이용되는 등 한국어 역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小生’은 『坊っちゃん』의 1960년대의 번역 작품에서 ‘소생’이라는 번역 예가 있지만, 그 이후의 작품에서는 ‘나’ ‘저’가 이용되는 등, 시대에 따라 번역 어휘 선정의 차이가 보였다.

『坊っちゃん』에서 6명의 교사 캐릭터가 사용한 대칭 표현 ‘あなた’ ‘君’ ‘貴様’ ‘이름(性)+君’ ‘이름(性)+さん’ ‘이름’ 등의 한국어 역은 다음과 같다.

‘あなた’는 ‘자네, 선생, 선생님, 과목명·직위명+선생님’과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번역되었다. 청자가 상위의 인물일 때는 ‘선생님, 과목명·직위명+선생님’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번역 예가 많았고, 청자가 손아래의 인물일 때는 ‘자네’의 번역 예가 많았다. ‘君’는 대화의 장면과 상하관계에 따라 ‘이봐, 이 사람아, 당신, 군, 자네, 선생, 선생님’으로 번역된 바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상대가 장성한 인물에게 대우하는 ‘자네’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 ‘선생님’의 번역 예가 많았다. 청자가 손아래 인물과 손위의 인물일 때의 ‘貴様’는 장면과 상황에 따라 상대를 낮추는 ‘너, 네놈’의 어휘 선정률이 높았다. ‘이름(性)+君’은 ‘이름(性)+선생·선생님·씨’, ‘이름(性)+さん’은 ‘이름(性)+선생님’과 같이 직업 명칭이 이용되었다. ‘이름’은 ‘이름’으로 번역된 비율이 높았지만, 연령상 청자가 손위의 인물일 때는 ‘이름+할멈’, 손아래

의 인물일 때는 '이름+짱·야' 같이 연령상의 상하관계에 의해 번역 어휘가 선정되었다. '諸君'은 '선생님'이라는 직업 명칭이 이용되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諸君'은 '여러분'으로 번역되는 화자의 직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보였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번역 작품 『坊っちゃん』에 나타난 자칭 표현과 대칭 표현은 사전적 어휘의 고정적인 표현에 머무르지 않고 문화권에 상응한 언어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금후 본고를 바탕으로 '타칭 표현'으로 확장해 나아가고자 한다.

## ■ 참고문헌

- 남기심·고영근(1987),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이필영(1987), 「현대국어의 1.2인칭 표현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2, 209-229.
- 吳秀賢(2010), 「日本語・韓国語の人称代名詞の比較」, 『立命館言語文化研究』 22(2), 立命館大学国際言語文化研究所, 103-111.
- 鄭惠先(2001), 「日本語と韓国語の人称詞に関する対照研究」 『人間文化科学研究集録』, 33-45.
- 大杉文彦(1889), 『言海』関西売捌所.
- 太田真希恵(2009), 「ウサイン・ボルトの“I”は、なぜ「オレ」と訳されるのか-スポーツ放送の「役割語」-」, 『放送研究と調査』 59-3. NHK放送文化研究所, 56-73.
- 金谷武宏(2003), 『日本語文法の謎を解く』, 筑摩書房.
- 金水敏(2003), 『ヴァーチャル役割語の謎』, 岩波書店.
- 金水敏(2014), 『役割語小辞典』, 研究社.
- 黒崎佐仁子(2010), 「役割語から考える自称詞「わし」の方言性と出現時期」, 『聖学院大学紀要』 聖学院大学, 1-14.
- 中村桃子(2007), 『<性>と日本語』, NHKブックス.
- 中村桃子(2013), 『翻訳がつくる日本語』, 白澤社.
- 宿利由希子(2012), 「キャラクタのタイプと役割語に関する意識調査報告 -<<私たち>>タイプに注目して-」, 『言語科学論集』 16, 85-96.
- 鈴木孝夫(1985), 「自称詞と対称詞の比較」国広哲弥編 『日英語比較講座 5-文化と社会-』, 大修館書店, 17-59.
- 高見澤孟(2004), 『新・はじめての日本語教育2』, アスク.
- 田窪行則(1997), 「日本語の人称表現」 田窪行則(編), 『視点と言語行動』, くろしお出版.
- 竹内直也(2003), 「現代日本語における対称代名詞の特異性-人称詞の

観点から-, 『学習院大学国語国文学会誌』, 学習院大学人文科学研究所, 1-12.

牧野成一(2018), 『日本語を翻訳するということ - 失われるもの、残るもの』, 中公新書.

松村明(1977), 『近代の国語-江戸から現代へ-』, 桜楓社.

[분석 자료]

夏目漱石 지음 김성한 옮김(1962) 『붓짚』 을유문화사.

夏目漱石 지음 이종렬 옮김(1966) 『붓짚』 지문각.

夏目漱石 지음 오유리 옮김(2001) 『도련님』 문예출판사.

夏目漱石 지음 육후연 옮김(2002) 『도련님』 인디북.

夏目漱石 지음 김상수 옮김(2007) 『도련님』 신세계.

夏目漱石 지음 권남희 옮김(2007) 『도련님』 책 만드는 집.

夏目漱石 지음 이민영 옮김(2009) 『도련님』 평단.

夏目漱石 지음 박현석 옮김(2011) 『도련님』 현인.

夏目漱石 지음 지희정 옮김(2012) 『도련님』 생각처럼.

夏目漱石 지음 유은경 옮김(2012) 『도련님』 향연.

夏目漱石 지음 손수정 옮김(2013) 『도련님』 가교출판.

❖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 of Translation of ‘Teacher Character’, a first-person expression and a second-person expression in the Novel –Focus on the Linguistic Acts of a Teacher in *Botchan*–

Yang, Jungsoon

This study performs an analysis of the aspect of translation of <a first-person expression> and <a second-person expression> in the novel. It focuses on the Linguistic Acts of a Teacher in *Botchan*. Examples of translation for <a first-person expression> were as follows: ‘Ore’ ‘Boku’ ‘Watashi’ used role language were translated into ‘Na’ ‘Jeo’ according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Jibun’ was translated into ‘Na’ ‘Jeo’ ‘Uri’ ‘Jagi’. Examples of translation for <a second-person expression> were as follows: ‘Anata’ was translated into ‘SeonSaengNim (teacher)> JaNe’. ‘Kimi’ was translated into ‘JaNe> SeonSaengNim (teacher)’. ‘Kisama’ was translated into ‘Neo, NaeNom’. ‘Family name+君’ was translated into ‘SeonSaengNim (teacher)’. ‘Family name+さん’ was translated into ‘SeonSaengNim (teacher)’. ‘Last name’ was translated into ‘Last name’. However, there were different expressions (title affixed to people's names)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ordinates and superiors like ‘Last name+HalMum (an old woman)’ ‘Last name+Chan’. Second-person expressions tended to be translated using occupational names.

Key Words : translation patterns, role language, a first-person expression,  
a second-person expression, the linguistic acts of a teacher

■ 논문투고일 : 2022. 05. 10

■ 심사완료일 : 2022. 05. 31

■ 게재확정일 : 2022. 06. 02

